

# 건설경기 악화에 발목잡힌 전남 SOC 확충

### 여수 금오대교 건설공사 2차례 유찰...기타공사 전환해 설계·시공 분리 최무경 도의원 "SOC 사업 추진 위해 지역 건설 사업 경쟁력 강화 필요"

건설 경기 악화로 여수 월호도와 대두라도, 금오도를 잇는 금오대교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서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려던 전남도는 뜻하지 않은 압축을 만나자 공사발주 방식을 변경하는 등 연내 착공을 가시화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당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해오던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를 기타공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턴키 방식의 공사입찰 공고에 응찰 업체가 없어 결국 설계와 시공을 분리했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사업비 2358억원, 총 길이 3.64km에 달하는 금오대교는 국도 77호선과 연결되면서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육상 이동이 가능해진다. 금오도와 대두라도 주민 수는 각각 1370명(887세대), 128명(73세

대)으로 금오대교 공사로 1500여명이 바다를 통하지 않고 육지를 오가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도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턴키 방식의 공사 입찰에 나섰으나 응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금오대교 건설공사의 발목을 잡은 건 건설경기 악화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량공사는 여업권, 항로 등 변수가 많은 공사로 분류되는데 턴키 방식의 경우 입찰 시에 제출한 건설비로 공사를 끝마쳐야 해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크다.

2000억원대의 큰 공사로 건설업체 입찰만 관할하면 업체들이 앞다퉈 입찰할만한 규모지만, 최대 10년이 걸리는 교량공사라는 점에서 현재의 건설업계 흐름대로라면 자재비, 인건비, 보상비 등의 상승 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심지어 전남도가 교량건설 경험이 많은 '1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열었으나 기업들은



여수 금오도 망산에서 굽어본 직포항과 건너편 안도.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사 입찰에 불응했다.

건설업황 악화가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최근 전남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 도산 등으로

무너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턴키 방식의 경우 입찰 조건 중 하나로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 건설업체가 49%의 지분을 확보

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지분 49%에 달하는 금액을 감당할 만한 전남 건설업체가 전무한 상황으로, 그나마 당치가 컸던 남양건설, 한국건설, 영무토건 등도 회생을 피하지 못하는 등 참여할 만한 지역 건설업체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도는 이런 사정 때문에 직접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시공사를 따로 찾아 나서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사실상 당초 목표했던 연내 착공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도가 진행한 설계용역 사업 수행능력평가서(PQ) 접수에 업체 1곳만이 접수하면서 유찰됐다.

도는 2차 접수 이후에도 복수의 업체가 접수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무경(민주·여수4) 전남도의회 의원은 "금오대교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섬 지역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전남의 SOC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전남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맞춰 '국정과제 대응 TF' 가동

### 대전공약 이행·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현안 담기 총력

16일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핵심현안을 담기 위해 본격 움직임을 내었다.

광주시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대전공약 실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전공약 서울상황실'과 '골목경제 상황실'을 동시에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대전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하고 '대전공약 서울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은욱 정책기획관이 서울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공약을 국정과제에 담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17일 서울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현재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경제 상황실'도 함께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의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에 발맞춰 지역 민생경

제를 회복 시킨다는 것이 광주시의 구상이다.

골목경제 상황실은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골목경제 상황실 첫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과 지역 상권 간 매칭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20일에는 공공배달업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과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재명 정부 초기는 광주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광주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과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두 날개를 펴고 광주가 날아올라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16일 김영록 전남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출범하고 국정기획운영위 출범에 따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전남도는 '전남 미래발전 건의과제' 100건과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전남공약 이행 주요과제' 77

건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위와 관계 부처 등에서 적극적인 건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 주요 건의과제로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솔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등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으로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협력부서를 거점으로 도지사과 부지사·실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 등이 수시로 상주하며 국정기획위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김영록 지사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전남 주요 사업이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전남발전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전남도의 핵심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돼 전남은 물론 국가발전까지도 이끌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최지현 "금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적극 나서야"

#### 광주시의원 정례회서 5분 발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 유해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지현(광산1선거구) 광주시의원 1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6월 10일 기준 주민피해 접수만 1만 2000여건이 넘었으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피해보상 등 근본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타이어 제조공정에 필요한 각종 유해물질을 연간 4900t을 사용하는 사업장임에도 유해물질 보관량·소실량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생업 중인 주민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사실상 피해접수가 어렵다"며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시는 "현재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서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건물 내부 진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화재조사가 완료되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의 소실량과 잔존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민·관합동 TF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청해진호' 폐선...학생들 실습교육 차질 없어야"

#### 전서현 도의원 지적

전서현(국힘·비례) 전남도의회 의원이 완도수산고 실습선인 '청해진호'의 폐선(광주일보 4월24일 14면)과 관련해 교육의 질 저하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전남도교육청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심사 의결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청해진호의 폐선 추진 소식을 접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난해에도 다수의 검사와 수리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해기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승선 실습이 필수인데, 해누리호의 실습 기간이 기존 청해진호에 비해 짧아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완도수산고는 많은 해기사를 배출하며 지역 수산업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해온 전통 있는 학교"라며 "실습교육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습선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 무등도서관, 시민참여 도서관학교 운영

### 작은도서관 활성화 노력

광주시가 지역 공동체 문화형성의 공간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교육을 진행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립무등도서관은 19일부터 26일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봉

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시민참여 도서관학교'를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작은도서관 홍보 기법과 사례(이선미 작은도서관 caru 관장), 지역을 만드는 힘, 작은도서관(김명희 여우네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 보탬e 시스템(지방보조금 디지털 시스템) 교

육(장현규 마을발전소 사무국장),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의 윤송현 작가 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19일(소회의실), 24일(대회의실), 26일(소회의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릴 예정이고, 19일과 26일은 각각 25명, 24일은 5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을 원하는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은 광주시 대표도서관 홈페이지의 '작은도서관 사업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문화신협**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